

## 창세기 읽기 012 (창 4:16~26)

창세기 읽기 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을 읽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앞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에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받으셨다는 얘기였고요. 열 번째 시간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 죽인 거 아주 큰 문제인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대목은 그 변명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발뺌을 하다가 잡히면 또 자기 염려에 떨어지죠.

자기 염려 떨어지는 게 열한 번째 본 대목에 나옵니다. 10 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동생을 죽인 자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시네요. 왜 그랬을까요? 열 한 번째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어떻게 살려 두시지요? 완전히 내쫓고 누구든지 저 가인은 내 관심 밖이니까 어떻게 되든 뭐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할 만한데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하겠습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을 것이다. 7배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살려 두셨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감정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마저 살려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의 성서적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마저 살려주시지 않았냐고 말이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반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아직 있긴 한데 사형이 아직까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 전엔 집행되는데 한 몇 년 정도 되니까 20 년 정도는 사형 집행이 없었습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죠. 좀 문명 국가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왜 정말 천인공노할 인간은 사형시켜야지. 미국엔 있어요. 종종 거기는 사형집행이 됩니다. 그게 정의를 살리는 거지 하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건 아니긴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마디만 보탠다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한 마디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포악하고 불안정하고 자기 변명에 예민한 지를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없어도 되는 건데 나와 있어요. 빨리 한번 훑어서 가겠습니다. 오늘로 4장은 다 마치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애든 동쪽 늦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

하매 또 가인의 아내가 어디 있었지 궁금 한 생각이 드시나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은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끌어다가 해설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네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짚은 겁니다. 누군가 아내가 있었겠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에녹을 낳은 지라. 에녹은 그 죽지 않고 그 승천에 따로 알려진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와 에녹인데 근데 여기서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닙니다. 다른 에녹이에요. 승천했다고 알려진 에녹은 노아의 할아버지 쯤 되나 뒤에 보면 나오겠죠. 노아 이야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 에녹이 또 하나의 에녹은 아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성이 있군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두사엘을 낳고 므두사엘을 라멕을 낳았더라 이 이름이 참 우리에게 났습니다. 이건 가인의 계보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세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이에요. 셋의 가보가 중요하죠. 근데 이 가인의 계보를 왜 여기에 기록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을 담았을까요

라멕이 좀 유명한 사람이예요 여기서.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사라 하나의 이름은 쉴라였더라 두 아내를 맞았다 그러합니다. 무슨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걸 근거로 뭐 아내를 둘 얻어도 되는거 말하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거를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어떤 부분은 문자로 받고 어떤 부분은 부분은 안 그러고 들쭉날쭉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두 여자를 아내로 마쳤습니다.

고대인들에겐 이런 일들은 뭐 흔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몇몇 아내들을 두었겠죠. 또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는 아들을 후손을 입게 하기 위해서 후처를 얻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대개 많이 그렇죠. 구약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구요. 야곱의 열 두 아들과 딸 이름이 디나죠. 딸이 아니 아니 아니야 딸 아 왜 이름이 생각 나지 않나요? 딸 딸이 있어요 딸 하나 이름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딸내이를 만나오는데 또 모르지 않죠 제가 성경을 찾아 봐야 되겠나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대답니다. 어 구글 찾기에 들어가면 꼭 몇 개의 그 뭐야 정보가 뜨잖아요 근데 고 디나 라는 이름 없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글자만 보고 디나 이름이 기억 났습니다. 아

굽이 네 명의 여자에게서 아들을 열 두 명이나 낳았습니다. 두 명 음 두 명은 본래 아내고 나머지 두 명은 자기 아내의 몸종들이었어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아다가 여자조 첫 번째 여자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자의 조상이 되었군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가인의 가계도를 여기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조상.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가가 되었군요 음악가의 조상 쉴라는 람에게 둘째 아내 쉴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대장장이 조상이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름만 나왔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러한 전래의 민요가 고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연구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약 학자도 아니고 저런 것에 또 관심이 많지 않아서 알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노래로 나와요. 전래 민요로 들립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라멕이 저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나 봐요. 24절, 가인을 위하여 하는 벌이 칠 배일 진데 라멕을 위하여 하는 벌이 칠십칠 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은 동생만 죽였고 라멕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승된 이야기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걸 기록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썼겠죠? 성경은 두 가지 예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이야기 전생 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자가 새롭게 쓰는 이야기 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전승이 있고 글을 쓴 사람의 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연구하는 분야를 가르켜서 전승사 연구라고 합니다. 그 전승되는 그 과정을 잘 살피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런 말들이 전승해서 내려오는 글들에 연구할 게 도대체 뭐가 있담? 이라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어떤 글이 이렇게 전승될 때는 그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진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바뀌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전래 민요로 가장 유명한 게 아리랑이죠. 그 아리랑이 각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리랑 민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었을 거예요.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끝없이 두루두루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다르잖아요. 전승이 달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

다. 그 외에 다른 고대 문헌들도 전승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다른 판본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숫자도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표현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씨 하나다 똑같은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복음서 뿐만 아니라 바울의 편지에서도 전승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다 썼을 거라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물론 거의 대부분은 바울이 썼죠. 그런데 바울도 어떤 전승된 내용을 그대로 그 편지안에 반복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 이거는 전승된 유대인들의 노래로 보입니다.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라멕이 여러 전문가들의 조상들이 되는 아들들을 낳아서 유명하기는 한데 살인자인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어떤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니라 소년까지 죽였다고 하는 걸 보면 대량 학살의 주범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 두겠습니다. 대량 학살이 소녀를 죽였다고 하니까 소년은 그냥 죽지 않잖아요. 이 애들은 힘도 없는데 누가 죽이겠습니까 어느 집단 학살에 포함되는 거죠. 인류 역사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2 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적 투쟁 가운데서 벌어진 학살들이 많습니다. 집단 학살된 경우들이 많아요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우리 남한에서도 있었습니다. 꼭 문제가 있어서 죽진 않아요 집단 학살될 때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지나갑시다 우리에게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에요

4장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25 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네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번에도 또 아들을 낳았네요 딸은 낳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에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멀리 떨어졌고 아벨은 죽었고 셋 이 아담과 하와의 가계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함이며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냥 큰 의미가 있다가 보다 하나님 백성이 이제 세세 후손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따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 뭐 하나님 등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님 주 등등이요. 야웨 엘로힘 아도나이 뭐 등등 있어요. 그거는 꼭 이름이라기 보다.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이면 안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를 우리의 생각 범주 안에 가두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이면 안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까지가 하나님 관계된 거죠 안식일을 빼놓으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

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세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한 십계명의 내용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호렘산에서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고 나를 보내신 이를 누구라고 내가 가서 내 민족들에게 말을 전할까요?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냐. 영원하시고 무소부재 하시고 없는 곳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사유 방식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또는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다 담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때는 대단히 엄하시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가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을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미 이렇게 하나님 신앙이 확보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곤란 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인이야기는 흑역사로 남아 버렸고요. 새로운 역사가 셋부터 시작합니다. 4장, 제가 흑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가인이야기가 아주 특별하게 이상한 시대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 제가 여기 이야기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거 하나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지나간 이야기가 있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저 가인은 죽어도 싸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단 말이에요. 저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도 살아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하기는 할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저게 딱 맞는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존재보다는, 아니라도 존재가 선하다고 말이죠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부도덕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게 나은 겁니다. 그 잘못된 건 고쳐서 존재하게 되게 할 수 있지만 비존재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어떤 설교인가 아니면 성경공부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다시 기억납니다. 아 지 지난주 설교 복기에요. 악 마저도 있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악 마저도 우리가 열린 자세로

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네요. 근데 이거 하고 비슷한 대목입니다. 비존재가 돼 버리면 그런 어떤 가능성이 제로가 돼 버려요. 그거보다는 좀 악해도 존재하는 게 나은 거죠. 이게 그냥 일상적인 걸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말이 자꾸만 늘어지네요 미안합니다. 곧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라든지 뭐 다른 모임이라도 좋아요. 거기 좀 뭐라고 그러죠 그 밍생이 라고 하나 같은 뭐 그런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밍생이 말고 못하는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그런 사람 없이 다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좋을 거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민폐끼치는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